

## 상호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기독교\* 다문화사회복지의 과제: 평등을 지향하는 공정한 환대의 실천\*\*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독교 다문화사회복지의 실천이 필요하다.
- II. 다문화주의 이론
  - 1. 차별배제 모델, 동화주의 모델, 다문화주의 모델
  - 2. 다문화주의를 넘어 상호문화주의로
- III. 한국 다문화사회의 평등과 불평등, 그리고 정의
  - 1. 이주민의 인권과 사회권 (시민의 권리)
  - 2.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참여
  - 3. 인정과 재분배의 정치
- IV. 성서에 나타난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환대의 신학
  - 1. 이주민 종류와 개념
  - 2. 환대의 신학
- V. 평등을 지향하는 공정한 환대의 실천 -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의 기독교 다문화사회복지 실천
- V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6.36.02>

\* 본고에서 기독교를 지칭할 때는 개신교를 의미한다.

\*\* 본 논문은 2016년 10월 개최된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에서 발표한 논문을 재정리한 것이다.

---

• ABSTRACT •

---

The Challenges of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based on  
Interculturalism - Concentrating on the Practice of Fair Hospitality  
toward Equality

Kim, Seongho(Korean Bible University)

Korea is rapidly chang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al immigrant policy, however, is merely targeted multicultural families as it tries to overcome discrimination and accommodate diverse cultures. If it is inevitable of the transition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it is necessary to practice the alternative long-term policy to create an equal and harmonious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seeks to find the answer in the Bible and in the spirit of "hospitality" demonstrated by the Christian community. The Bible teaches us to provide hospitality to strangers. Transition to an equitable and harmonious multicultural society is possible not only when this society warmly welcomes strangers, but also when they are welcomed as equal members of our society and participate into this society voluntaril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proposes Christian social welfare practice of hospitality based on interculturalism.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following three goals. First, it introduces interculturalism in order to respond to the multicultural society of the Korean churches and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system. Second, various multicultural ideologies in the Bible are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hospitality and applied to various theories of multiculturalism. Lastly, it presents biblical grounds and practical suggestions of fair hospitality in response to inequality based on the perspective of interculturalism.

**Key words:** Multiculture, Interculturalism, Christian Social Welfare, Equality, Hospitality

---

## I. 들어가는 말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독교 다문화사회복지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주(migration)는 그 사람의 생활 근거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이다. 세계적으로 2.3억이 넘는 인구가 자신의 출생국을 떠나 살고 있으며 이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여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 중에는 성공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차별과 폭력 그리고 착취에 시달리며 힘든 이주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오늘날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현재의 다문화정책과 실천방식으로 한국 다문화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급변하는 다문화사회에 대응할 장기적 안목의 정책적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표방해온 다문화주의 정책도 주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수준도 단순히 차별을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아직도 온정주의적이고 동화주의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와 함께 성장하면서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위해서 묵묵히 사회복지를 주도했던 교회와 기독교사회복지 실천 현장도, 다문화 영역에 있어서는 나그네를 돌보는 소극적 환대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다. 자칫하다가는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고착화 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등하고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본 연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가 보여준 ‘환대’의 정신에서 찾고자 한다. 성경은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가르친다. 평등하고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이주민들을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로 환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맞이하고 그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상호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현대의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을 제안한다.

## II. 다문화주의 이론

### 1. 차별배제 모델, 동화주의 모델, 다문화주의 모델

다문화관련 이론이나 유형 모델 중 가장 널리 연구되고 적용되는 유형 분류는 차별적 배제모델(differential exclusion model), 동화모델(assimilation model), 다문화모델(multicultural model)으로 구분되는 방식인데 이는 캐슬과 밀러(Castles & Miller)<sup>1)</sup>가 서구의 국가들이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방식 및 이주민에게 자국시민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에 따라 다문화 사회통합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세 가지 다문화정책 모형 중 하나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유형들을 부분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각기 유형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sup>2)</sup>

#### 1) 차별배제 모델

차별배제모델은 국가내의 소수집단의 문화를 국가의 단일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하여 소수문화와 분리 혹은 배제를 시도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국가는 궁극적으로 이민을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해 이주민을 차등적으로 대우하고, 사회가 원하지 않는 외국인의 정주 가능성을

1) Castles, S. & Miller, M. J. *The Age of Migration*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2003), 54~56.

2) 김미나, “다문화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연구” 『행정논총』 제47권 4호 (2009). 199~200.

차단하는 정책을 취한다.<sup>3)</sup> 대표적인 차별배제모형의 사례로는 독일의 ‘손님노동자제도(guest worker system)’를 들 수 있다. 이는 독일에서 전후 재건과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모자라는 노동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면서 도입한 것이다. 이 손님노동자제도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정기간 동안에만 필요로 하는 특정 직업군에서의 노동력을 충원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영구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한시적으로만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배타적 이민정책유형이다.<sup>4)</sup> 독일, 일본, 한국 등 단일 민족을 강조해온 나라들이나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동화모형이나 다문화모형을 채택한 나라에서도 특정 유형의 이민자 집단에 적용하는 모델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와 산업연수제도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차별배제모델은 확대되는 세계화속에서 이주민의 유입을 막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와 소수민족의 문화를 경시하며 이주민의 인권이나 평등권의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 2) 동화주의 모델

문화적 동질화를 추구는 동화주의 모델은 이주민에게 주류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국의 언어를 사용하며 주류사회에 완전히 동화되기를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은 자신의 모국어와 문화,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다.<sup>5)</sup> 동화주의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주민들이 프랑스 문화를 수용하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면 공화국의 시민

3) Castles & Miller, 같은 책, 54~56.

4) 금혜성·임지혜, “독일·영국·한국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 국제비교: 외국인의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와 정책적 배경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3권 2호 (2010), 37~39.

5) Castles & Miller, 같은 책, 54~56.

으로 받아들이는 공화주의 모형<sup>6)</sup>과 미국이 다양한 소수민족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하기 위해 표방해온 용광로 또는 멜팅팟 (melting pot) 모형<sup>7)</sup>을 들 수 있다. 또한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유지해 왔고,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민적 기질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아 우리나라의 동화주의적 다문화정책과 비교하기에 적합한 면이 있다.<sup>8)</sup> 하지만 과거 민족국가들이 식민 통치의 이념으로 삼기도 했던 동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경시하는 측면이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들이 이주국의 주류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3) 다문화주의 모델

차별배제모델과 동화주의모델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부터 등장한 다문화주의 모델은 주류사회가 기꺼이 소수문화의 가치를 주류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여, 다양한 문화 간의 차이를 수용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집단이 공존함으로써 문화적 충돌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고자한다.<sup>9)</sup> 다문화주의에 대한 소개와 본격적인 논의는 1970년대에 캐나다와 호주에서 시작하여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었다.<sup>10)</sup>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의 주류집단이 다양한 소수집단의 문화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6) 한승준, “프랑스 동화주의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2008), 463~465.

7) 김호연, “미국의 동화주의적 이민자정책과 다문화주의.” 『인문과학연구』 제28호 (2011. 03), 251-256.

8) 한승준, 같은 글, 463~465.

9) Castles & Miller, 같은 책, 54~56.

10) 서종남,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역할과 과제.” 『교육문화연구』 제15권 2호 (2009), 75~78.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다양한 선진국 이민자 집단이 가진 고유한 문화를 지칭하기도 한다.<sup>11)</sup> 다문화주의는 멜팅팟 이론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기반으로 미국에서는 샐러드볼 이론(Theory of salad bowl)으로 캐나다에서는 모자이크 이론(Theory of Mosaic)으로 대체되어 다문화사회를 설명하기도 한다.<sup>12)</sup> 이외에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의 상대성을 존중하고 문화 간 차이를 공간적 차이로 구분 짓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양한 집단의 하위문화 간 차이와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모든 문화에 내재한 보편성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집단의 정체성이 개개인의 독특한 정체성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개인은 그가 속한 집단의 일부로 간주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부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문화주의 정책은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거나 개개인의 특성이 집단의 특성에 가려지게 될 우려가 있으며 지나친 다양성 존중은 사회통합에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2. 다문화주의를 넘어 상호문화주의로

다문화주의는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1990년대 후반에 들면서 경기침체와 실업증가, 복지축소 등의 영향과 더불어 크고 작은 문화충돌을 경험함에 따라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치고 비판에 직면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가 부상한다.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문화 간의 정적인 ‘공존’을 강조했다면 상호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 간의 ‘상호교류’를 중요시했으며 다문화 사회통합을

---

11) 김호연, 같은 글, 257~262.

12) 하지만 샐러드 볼이 특정한 나라의 드레싱으로 버무러지거나 특정한 나라의 주류문화가 모자이크의 밑그림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서종남, 앞의 글, 77~78.

위한 가장 성숙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sup>13)</sup> 상호문화주의는 효과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문화에 대한 단순한 수동적인 수용을 넘어 문화 간의 대화와 상호 작용을 촉진한다. 다문화주의가 한 사회 안에서 자국의 주류문화와 소수민족(이주민)의 문화와의 조화로운 공존 혹은 이상적인 공존을 의미하는 ‘존재론’적인 측면이 있다면, 상호문화주의는 상호지식, 상호이해, 상호소통을 중요시하는 ‘해석학적 혹은 인식론적’ 접근을 강조한다.<sup>14)</sup> 이와 관련해 압달라-프렛세이(Abdallah-Preteuille)는 문화는 더 이상 독립적인 개체들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의사소통에 근거한 실체로서 주변맥락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sup>15)</sup> 즉 중요한 것은 집단적 정체성이 아닌 개인적 수준의 정체성을 서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상호문화주의가 다문화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했지만 다문화주의 동떨어진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다문화주의의 상당 부분의 긍정적인 개념을 포괄하고 재강조하며 그 이상의 가치를 지향한다.<sup>16)</sup> 즉 이주민이나 소수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다문화주의를 계승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상호문화주의는 기존의 다문화주의가 서로 다른 문화들을 집단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강조했던 것을 넘어서 개개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나누며 이를 통해 더 조화롭게 통합될

13) 오정은, “유럽의 상호문화정책연구: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6권 1호(2012), 43.

14) Clara Saramento, “Interculturalism, multiculturalism, and intercultural studies: Questioning definitions and repositioning strategies.” 『Intercultural Pragmatics』 11(4), (2014), 606.

15) Martine Abdallah-Preteuille, “Interculturalism as a paradigm for thinking about diversity.” 『Intercultural Education』17(5), (2006), 475-477.

16) Martyn Barrett, Interculturalism and Multiculturalism: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13) 15.

수 있는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을 지향한다.<sup>17)</sup>

상호문화주의는 유럽과 캐나다에서 시작되고 논의되고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유럽 각국과 미국에서 들려오는 테러와 난민문제, 인종갈등, 종교 갈등을 볼 때 상호문화주의의 향후 전개방향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또한 상호문화주의를 적용하여 비교적 성공적인 다문화사회를 꾸려가는 캐나다의 경우는 그 출발점이 백인 주류사회와 유색인 소수 민족 간의 상호호혜관계라기 보다는 다수의 영국계 캐나다인과 비교적 소수의 프랑스계 캐나다인의 관계 속에서 기인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 상호문화주의를 바로 적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급격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다문화주의 관련 이론, 모델, 정책들이 동시대에 증첩되는 독특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문화가정을 위주로 한 시혜적 성격의 국가주도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의 이주방식과 체류 신분에 따라서도 불평등이 존재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따라서 서구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들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과정 속에서 고민하고, 적용했던 노력과 사례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상호문화주의의 장점을 우리나라 다문화상황에 맞도록 새롭게 정착하는 것이 시급하다.

---

17) Ave, F. Europe's future: make yourselves at home, The Guardian, (2007. 06. 05).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07/jun/05/europesfuturemakeyourselvesathome>

### III. 한국 다문화사회의 평등과 불평등, 그리고 정의

#### 1. 이주민의 인권과 사회권(시민의 권리)

흔히 ‘인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언론, 표현, 사상, 신체, 양심의 자유 같은 ‘자유권’, 즉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연상한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의미하는 ‘사회권’과, 사회구성원들 간의 협력과 연대를 보장하는 ‘연대권’을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의 시행을 위해 체결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조약은 개인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노동, 주택, 교육, 문화, 환경과 관련하여 국가나 사회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 필요한 재화에 대한 ‘사회적 참여(분배)권’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도 제31조~36조에서 이 사회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sup>18)</sup>

시민권(인권)은 그 사회에 존재하는 구성원(시민, 인간)이면 모두 다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그 권리를 획득하고 행사하려면 그 사회가 합의한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조건이 다수자나 주류집단의 기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소수자들은 그 권리로부터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아왔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소수집단의 존재가 확인되고 그들의 시민권이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소수자를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여전히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sup>19)</sup>

18) 장은주, “사회권의 이념과 정치.” 『사회와 철학』 제12호(2006), 187~188.

19) 김홍수영, “시민성을 기준으로 조명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노숙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2005), 180.

개인의 인권에 대한 개념은 모든 사람에 대한 상호 존중에 대한 원칙에 근거해야 하며 사회권에 대한 인식은 그 사회가 '사회권'에 대해 어떠한 철학적 이해에 근거해서 정당성을 합의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이에 대한 법률과 제도적 측면을 기준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간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외국인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계속 받아오고 있다.<sup>20)</sup> 또한 이주민의 인권과 사회적 권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오늘날 그들을 부르는 호칭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지는 취지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던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선주민(한국인)과 이주민(다문화인)을 구별하고, 한국문화와 외국문화(다문화)의 경계를 짓는데, 이러한 구분은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sup>21)</sup> 그러나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막기 위해 새로 제안된 '다문화인', '다문화 가정', '다문화 자녀'라는 용어가 1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그들을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 혹은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불우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용어로 다시 쓰이고 있다.<sup>22)</sup> 한편, 이주노동자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주'라는 단어에서 오는 이방인이라는 선입관과 편견, 그리고 '노동자'라는 단어에서 오는 계층적 편견과 차별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한국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이주민의 시민 권리는 낮은 수준에 있다.<sup>23)</sup>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과 평등한 권리보장은 이주민

20) 2015년 6월 30일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서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2014년 방한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 등 한국 내 외국인 차별을 바로잡으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Redian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인종차별 개선권고”(2015. 07.02), <http://www.redian.org/archive/90277>

21) 장한업, “한국 이민자 자녀와 관련된 용어 사용상의 문제점.” 『이중언어학』제46호 (2011). 352~358.

22) 구분규, “다문화는 어떻게 이주민 가족을 비하하는 말이 되었나? - '다문화 가족' 만들기 와 이주민의 범주화.” 『동북아문화연구』 제42집(2015), 5~6.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동시에 우리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제는 소극적 차원에서 다문화 수용이나 관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시민권차원에서 다문화사회 담론을 이끌어야 한다. 이주민이 한 사회에서 사회적 성원권을 얻는데 ‘동화’나 ‘적응’을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sup>24)</sup>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거나 동화를 강요받는 존재가 아닌 다문화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인정과 권리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 2.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참여

개인이 특정한 사회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내에서 의미 있는 삶의 주요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 특정한 거처를 마련하고, 그 공동체에서 귀속의 권리를 갖지 않으면 생존할 수도 없고, 인권을 갖는다는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sup>25)</sup> 이처럼 이주민들의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등 사회적 권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속한 사회에 참여<sup>26)</sup>하느냐 아니면 배제되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이주민들에게 시민적 권리가 주어질 경우 그들의 공정한 사회참여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주민들은 주류사회로부터 고립된 소수로서 정치, 경제, 사회적 삶으로부터 배제

23) 장미경. “한국사회의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제39집 6호(2005), 171-179.

24)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서울: 문학과지성사, 2016), 65.

25) Arent (1951), *The Origin of Totalitarianism*, 29., 재인용. 장은주. 같은 글, 198.

26) 블룸라드 (Bloemraad)는 시민의 권리(사회권)을 법적지위 (legal status), 권리 (right), 정체성 (identity), 참여 (participation)으로 구분하고, 여기서의 참여는 경제활동의 참여, 사회활동의 참여, 그리고 정치적 참여의 형태를 지닌다고 설명한다. Irene Bloemraad,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 current Review.” JIMI/RIMI, Vol 1. No. 1. (winter, 2000). 9-37.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사회적 배제는 단순히 특정 개인이 물질적 분배에서만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정치, 경제, 문화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자원접근에 제한을 받아 주류사회로부터 분리되는 역동적인 사회적 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노동, 복지,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배제가 중첩되거나 강화되어 더 깊은 상실감과 소외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sup>27)</sup>

베리(John Berry)는 이주민들의 사회참여활동은 주류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주변화 되는 것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기제라고 했다. 이주민들이 사회참여를 활발히 추구하지 않으면 고립(isolation)되거나 주변화(marginalization)되게 되지만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 가운데 사회참여가 활발하면 이들의 적응형태는 통합(integration)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민자들의 적응과 사회통합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인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 공정한 사회참여 기회를 촉진하는 것이다.<sup>28)</sup> 이 과정에서 이주민들의 사회참여를 일방적인 동화의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대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출신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주자와 이주자의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한국사회에도 일정한 변화가 수반되고, 더 나아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에 대한 상호적 인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sup>29)</sup>

27) 김경미, 신유리, 전정식,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관한 연구: 세대별 노동과 교육,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2013. 03) 『장애학 국제세미나 2012: 한국과 일본의 장애와 병을 둘러싼 논의』 생존학연구센터보고 189~190.

28) Berry는 이주민의 문화적응 (acculturation) 방식에는 (1) 본래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2) 이질적인 집단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고 설명하면서 (어느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집단이 주류집단과의 관계유지에 더 긍정적인가, 혹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더 적극적인인가에 따라 문화적응 전략 (acculturation strategies)을 동화 (assimilation), 분리 (segregation), 통합 (integration), 소외 (marginalization)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John. W.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1997), 46(1), 7~11.

이주민들의 사회참여는 거창하거나 요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속에서 이웃들과 함께 활동하며 유대관계를 실현할 때 시작된다. 그러므로 가족행사 참여를 비롯하여, 친구들과 어울리기,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지역사회 행사참여, 직업 활동, 경제 활동,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투표 등의 모든 활동이 사회참여의 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주민들을 동화의 대상으로 보거나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의 일원으로 범주화 하여 상호소통하지 못하다면 그들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들 간의 상호이해와 상호교류를 바탕으로 한 상호호혜를 강조하는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이 이주민들과 선주민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보다 자연스럽게 만나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 3. 인정과 재분배의 정치

다문화주의를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치철학적 논리의 근거를 제시한 테일러(C. Taylor)는 한 개인의 정체성은 타자로부터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 사회의 주류문화가 소수문화의 가치와 차이를 동등하게 ‘인정(recognition)’하는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를 강조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는 주류사회가 소수문화를 동등한 가치로 인정하는 과정, 그리고 여러 문화집단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sup>30)</sup> 하지만 인정의 정치학은 인정하는 주체와 인정받는 주체 사이에 권력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타자를 인정하는 주체는

29) 황정미 외,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III).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참여현황과 증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44.

30) Taylor, Charles, *Politics of Recognition*, in Amy Gutmann(ed.), *Multicultur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4), 25~73.

시혜자가 되고 인정을 받는 대상자는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 관계는 집단과 집단 간에도 존재하고, 더 나아가 국가나 민족 간의 관계에도 작동하여 다문화사회에서 주류문화가 소수문화를 인정함에 있어서 권력기제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sup>31)</sup> 또한 인정의 문제를 문화나 가치 등의 추상적인 문제만으로 환원하게 되거나<sup>32)</sup> 인정의 정치만으로는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다문화사회의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테일러의 인정의 정치에 대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liberal multiculturalism)적 관점의 킴리카(W. Kymlicka)는 '재분배의 정치(politics of redistribution)'라는 개념으로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인정'뿐만이 아닌 사회·경제적 문제, 즉 계급과 부,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 같은 현실적 문제로의 접근 강조하며, 재분배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를 동시에 주장했다.<sup>33)</sup> 이와 비슷하게 프레이저(Nancy Fraser)도 인정은 재분배보다는 본질적인 문제이지만 인정과 재분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재분배 이슈는 인정투쟁과 함께 결합될 때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다고 보았다.<sup>34)</sup> 둘째, 평등주의적 자유주의(egalitarian liberalism)적 관점에서 브라이언 배리(Brian Barry)는 다문화주의가 개인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면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sup>35)</sup> 셋째, 해일(Charles Hale)은 신자유주의적 정

31) 송재룡,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학, 그리고 그 너머: 찰스테일러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2009), 92.

32) 오승은, "찰스테일러의 인정의 정치" 『이민인종연구회』 제5권 6호 (2012, 07), 5~10.

33) 김성근, "다문화사회에서의 갈등문제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9, 17~24.

34) Nancy Fraser & Axel Honneth,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London/New York: Verso, 2003. 김현경 같은 책에서 재인용, 214.

35) 브라이언 배리(Brian Barry)는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논의에서 자주 소개되는 J.W. Berry와는 다른 학자이다. 설한, "배리(B. Barry)의 다문화주의 비판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OUGHT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제19권 2호, (2014), 34-35. 정홍모, "다문화주의의 보편적 정치윤리논쟁." 『문화와 정치』 제1권

차경제 정책에 근거한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의 정체성과 문화적 인정에만 머물러 있을 뿐 정치·경제적 영역에는 미치지 못함을 비판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에게 최소한의 문화적 권리(minimal package of cultural right)만을 인정할 뿐 이외의 모든 분야에서는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다문화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sup>36)</sup>

한편 인정의 정치와 관련하여 호네프는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을 통해 ‘상호인정’을 강조한다. 상호인정은 개인의 사회적 삶의 형성과 재생산에 근본적인 기초이며, 그 상호인정은 다음의 세 가지 관계에서 발생한다, 인간사회의 ‘원초적 관계’에서 상호인정이 작동됨으로써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고, ‘권리관계’에서는 평등한 존재로 상호인정 됨으로써 자기 존중감을 얻게 되며, ‘사회적 관계’에서는 개인의 성과나 업적이 상호 인정됨으로써 자신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상호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다.<sup>37)</sup> 이와 같은 호네프의 ‘상호인정’은 본 연구가 강조하는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에 일치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다문화사회를 표방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지 못하고 아직도 심한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은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의 심각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주민을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동화의 대상으로 여기게 될 때 이주민은 타자로 규정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테일러가 강조한 ‘인정’의 수준

제1호(2014.6), 35.

36) Charles R. Hale. "Does Multiculturalism Manace? Governance, Cultural Rights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in Guatemala."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34(3), (2002), 485.

37) 남찬섭, "공공성과 인정의 정치, 그리고 돌봄의 윤리." 『한국사회』제13집 1호(2012), 852.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타자의 존재가 아닌, 자신의 주체성에 대한 자부심과 다문화시민으로서의 의식과 권리를 갖고, 자발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이다. 따라서 평등한 다문화사회는 이주민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을 도움이 필요한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한국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도록 유도하는 동화주의적 접근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소수의 문화로 타자화 시켜서 편견과 차별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다문화주의의 한계점도 극복해야 한다. 더 나아가 킴리카와 해일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하게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수준을 넘어서, 소수자로서 그들의 권리와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재분배가 가능한 구조를 확립해야만 불평등의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평등한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이주민 개인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장점을 살려 공동체의 통합과 상호호혜를 추구하는 상호문화주의적 접근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와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IV. 성서에 나타난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확대의 신학

##### 1. 이주민 종류와 개념

다문화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독교사회복지를 논하기 위해 성서에서 말하는 이주민(외국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구약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주민 혹은 외국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게르(ger)”로 한국성서에서는 ‘나그네’, ‘객’, ‘우거하는 자’, ‘이방인’, ‘타국인,’ 혹은 ‘외인’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다. “게르”와 유사한 단어로

“토샤브(toshab)”가 있는데 이는 ‘거류자,’ 혹은 ‘우거하는 자’로 번역되며, “게르”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주로 나그네로 칭해졌던 “게르”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낯선 사람들로서 현지 주민의 보호가 없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던 ‘외지인’을 가르킨다. 이외에도 ‘외국인’이라는 의미의 “노크리(nokri)”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sup>38)</sup> 구약성서에서 외국인 혹은 이주민을 칭하는 단어로 ‘노크리’와 ‘게르’를 구분하는데 ‘노크리’는 이스라엘에 정착할 의향이 없이 일시적으로 머물게 된 외국인(이주민)을 의미하고 ‘게르’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이유로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고향으로 이주해서 정착하게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이처럼 ‘게르’, ‘노크리’, ‘토샤브’ 등으로 칭해졌던 구약시대의 ‘나그네’들의 지위나 그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는 역사의 흐름 속에 시대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sup>39)</sup> ‘나그네(이방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친절, 호의, 환대를 베푸는 것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풍습이자, 성경에서 명하는 바였다.<sup>40)</sup>

신약성서에서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개념은 사회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손님 접대와 관련하여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유연하게 사용되었다.<sup>41)</sup> 신약에서 비유대인(gentile)을 칭하는 종교적 의미 이외의 이주민은 나그네, 체류자, 거주자 등으로 지칭된다. 그 중 이방인을 지칭하는 단어는 ‘파로이코스’<sup>42)</sup>로, 주로 ‘게르’와 병행해서 쓰이는데,

38) 왕대일, “나그네(게르)- 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제113집 (2001), 102~106.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3권 1호(2004), 512~523.

39) 한동구, “나그네에 대한 (구약) 성경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집(1988), 296~ 299.

40) 최무열, “한국 다문화가정 문제의 효과적 접근을 위한 신학적 근거들 형성: 구약과 외경을 중심으로.” 『교회사회사업』(2009. 10), 제10권, 79. Houten, Chr. Van. The Alien in Isaelite Law. 이영미 역,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구약법에 나타난 이방인』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8), 80-81.

41) 박경미, “세계화에 맞선 초대교회의 평등사상.” 『신학전망』 제167호(2009). 68.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오래 거주한 이방인을 의미한다. ‘파레피데모스’는 시민권 없이 이방에 거주하는 나그네를 칭한다.<sup>43)</sup>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돌봄과 접대의 대상인 낮은 자들로 나그네를 대했다. 한편 사회적 소수자였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나그네로 묘사하기도 했다.<sup>44)</sup>

이상 살펴본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나그네(이주민)’<sup>45)</sup>에 대한 관점은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 될 수 있다.<sup>46)</sup> 첫째, 나그네는 차별과 경계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보호하고 친절을 베푸는 관습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타민족을 차별하고 자신들과는 다른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둘째, 나그네를 확대의 대상으로 여겨서 보호했다. 또한 나그네들을 공정하게 대할 것을 강조하며 그들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를 나그네로 간주했으며(출19:34)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약속의 땅 밖에서 활동했다.<sup>47)</sup> 예수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나그네에 비유하기도 했다(히 11:13). 실제로 예수의 삶은 출생과 유아기, 광야 시

42) ‘파로이코스’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집과 가족을 표현하는 ‘오이코스’와 반대되는 말로 낯설고 기이한 외국인, 집을 떠난자, 본토인과 언어, 관습, 문화가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 나동광, “나그네 신학의 기초,”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20집 제1호(2001), 197.

43) 김경호, “성서에 나타난 이방인들 - 통일시대 북한 유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신학.” 『시대와 민중신학』 제4권(1997. 12), 145~146.

44) 박경미, 같은 글, 67~68. 박홍순, “한국 사회의 이주민, 대안적 정체성 그리고 성경 해석.” 『선교와 신학』 제20권(2007), 157.

45) 본 분류에서 나그네라는 단어는 앞서 소개한 다양한 이주민에 대한 단어적 의미와 시대적 상황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다.

46) 김명현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방인을 (1) 존중해야 할 이방인 게르(gher) (2) 확대의 대상인 토샤브(toshabh), (3) 피해야 할 이방인 노크리(nokri),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인 자르(zar)로 구분했다. 김명현, “성경 속의 이주와 다문화.” 『다문화와 인간』 제1권 제2호(2012) 92~94.

47) 한동구, 같은 글, 295.

기, 갈릴리 사역 시기 등 모든 여정이 일정한 거주나 정착을 포기한 나그네였으며<sup>48)</sup>, 그의 제자들과 바울은 예수의 나그네 정신과 삶을 본받아 나그네 선교사의 삶을 실천했고, 더 나아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확산되었다.<sup>49)</sup>

## 2. 환대의 신학

### 1) 성경에 나타난 환대의 의미

일반적으로 환대는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여기서 환대는 머물 곳과 먹을 것이 없는 손님의 요청에 대한 집주인의 책임을 가리킨다.<sup>50)</sup> 신약성경에 나타난 환대의 어원적 의미는 라틴어로는 ‘주인’ 혹은 ‘손님’을 뜻하는 ‘hospes’<sup>51)</sup>에서 왔으며 그리스 어원을 살펴보면 ‘philoxenia’ 인데 이 단어는 “낯선 자와 손님에 대해 호의적”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sup>52)</sup> 이는 또한 ‘사랑’이란 단어와 ‘낯선 자(stranger)’의 합성어인 ‘낯선 자에 대한 사랑’으로 번역된다.<sup>53)</sup> 따라서 환대는 가족이나 친지들뿐만 아니라 낯선 이방인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적의를 가진 원수 같은 사람들도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sup>54)</sup> 쇼(Shaw)는 환대의 의미를 하나님의 화해(reconciliation)와 환대의

48) 유혜숙은 예수를 ‘상호문화가정의 후손’이고 ‘이주민’이며 “상호문화사회적 인간”이라고 설명한다. 유혜숙, 상호문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소통의 길: 예수그리스도의 죽보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근거하여, 『신학전망』 183호(2013.12) 151~160.

49) 나동광, 같은 글, 199~205.

50) 권수경, “환대와 글쓰기 - 레비나스, 데리다, 자베스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53집(2015), 77~78.

51) The Merriam-Webster New Book of Word Histories, (1991) Mass: Merriam-Webster Publishing (1991), 227.

52) Anderson, David W. “Hospitable Classrooms: Biblical hospitality and inclusive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 Christian Belief』15(1), (2011). 15.

53) Hospitality Evangelism. Christian Library. (2013). www.christianstudylibrary.org

상호연관성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피조물에 대한 환대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예수의 삶에서 화해와 환대의 삶의 모범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는 초대 교회로 이어졌다.<sup>54)</sup>

구약성서에서 등장하는 환대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소개된다. 첫째는 나그네에 대한 환대이다. 구약에 등장하는 환대의 전통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진 것이 부족한 가운데에도 세 명의 낯선 사람을 최대한 정성껏 대접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낯선 자를 환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예언서에서 볼 수 있는 나그네에 대한 환대의 명령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역시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이주자로, 광야에서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음을 상기시키며, 그들에게 낯선 자와 나그네를 보호하고 보살필 것을 명령하신다.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관계에서 나타난 유대인의 정체성은 그들 스스로가 나그네(alien)인 동시에 다른 이방인(체류자나 낯선 자)들을 돌봐야 하는 존재였다.

신약에서는 예수의 삶을 통해 환대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환대의 극치를 보여 준 예수의 삶도 일생을 타인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나그네였던 동시에 당시 소외된 사람들과 떡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환대를 직접 실천하고 가르쳤다. 이러한 예수가 보여준 환대의 삶은 초대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폴(Pohl)은 “낯선 자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는 중요한

54) 정경호, “환대의 밥상, 환대의 신학 삶” 『신학과 목회』 제34호(2011), 181~182.

55) Shaw, Perry W. H. “A welcome Guest: Ministerial Training as a Act of Hospitality.” 『Christian Education Journal Series』3. 8(1), (2011). 9~14.

징표였다”고 한다.<sup>56)</sup> 바울은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서 리더의 덕목으로 환대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대의 실천을 강조했다.<sup>57)</sup>

한편,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환대는 단지 나그네를 잘 접대하는 단계를 넘어,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concern for justice)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방인, 나그네,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병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환대를 강조했다. 또한 예수 역시 종교, 인종, 성별, 빈부, 신체적 능력 등에 대한 당시 사회, 문화적 차별을 초월하는 환대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되는 환대의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셨다.<sup>58)</sup>

이와 같이 고대로부터 기독교 역사의 전통 속에 도덕규범의 핵심으로 자리했던 환대는 낯선 자에게 음식과 거주할 곳 등의 보호를 제공한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보편적 인간애로서의 환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폴(Pohl)은 환대는 우리가 타인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 인식할 때 본래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때 환대는 인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때의 인정은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종종 무시되는 그들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진정한 환대는 계층, 인종, 자격 등에 대한 장벽을 넘어서는 공동체적 기반에서 가능하다.<sup>59)</sup>

---

56) Pohl, Christine D.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33.

57) 손운산, “낯선 이를 환대하라.” 『돌봄의 목회』 제4권(2012. 04) 268.

58) Anderson, 같은 글. 16.

59) Pohl, 같은 글. 17-18

## 2) 환대에 관한 철학적 논의<sup>60)</sup>

신학적 연구 이외에도 ‘환대’는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의 정체성과 상호관계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철학적 관점에서의 의미를 정립하기 위해, 특히 근대 이후 유럽국가에서 이방인(타자)과의 공존과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논의되어 왔다.

칸트(E. Kant)의 환대의 개념은 내가 남의 집에 가면 적대적(Hostility)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아닌 환대를 받을 권리가 있듯이, 타인이나 나의 집에 오면 환대해야 한다는 상호성에 근거한 합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불완전하며 ‘조건적인 환대’를 의미한다.<sup>61)</sup> 따라서 칸트의 불완전하고 ‘조건적 환대’는 손님(타자)의 필요에 대한 주인의 의무로 강제되어지는 손님의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의무, 즉 주인(주체)의 입장에서 베풀어지는 관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때의 관용은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인하여 공존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sup>62)</sup> 칸트의 ‘조건적인 환대’는 데리다(J. Derrida)의 ‘무조건적인 환대’의 개념과 대비된다. 우선 데리다는 ‘관용’은 환대의 한계에 불과하다고 하며 환대와 관용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강조한다. 즉 관용이 주체의 ‘의지나 능력’에 근거한 주체 중심적인 것이라면 환대는 타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타자중심적인 것이다. 레비나스(E. Levinas)의 관점을 계승한 데리다는 ‘절대적인 환대(absolute hospitality)’는 방문자에게 아무런 의무감이나 부담을 주지 않고 방문자가 원하는 대

60) 환대의 개념은 철학 및 윤리학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깊이 연구되고 논의되는 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 상, 주요 학자의 개념만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에 그친다.

61) Nursoo Ida, Dialogue Across Difference: Hospitality between Kant and Derrida, *Borderlands e-journal*, Vol.6(3), 2007, <http://www.borderlands.net.au/>

62) 김애령,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39호(2008), 177.

로 행동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다.<sup>63)</sup> 따라서 데리다에게 있어서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환대는 주인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초대의 환대’가 아니라 ‘방문자의 환대’이다. 방문에 의한 환대는 절대적으로 낮은 사람, 즉 신원을 알 수 없고 방문을 미리 알 수 없는 도착자에게 열려있는 환대로, 위험을 감수해야한다.<sup>64)</sup>

환대는 타인에게 자리(공간)을 내주는 것이며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자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부여된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환대를 통해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권리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이 권리는 자원의 재분배를 포함한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의례적으로 평등해진다. 이주민에게 자리를 주고 그 자리에 권리를 부여하고 울타리를 돌려주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이다. 그 결과 환대는 공공성을 창출 할 수 있다.<sup>65)</sup>

### 3) 한국 다문화사회와 환대의 실천

오늘날 우리사회가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는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이주민들을 배척하거나 경제적 논리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다. 이는 본고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다문화유형 중 차별배제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주민들을 사회, 경제적 유형으로 분류하여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혹은 위협이 되는 지

63) O’Gorman, Kevin D. “Jacques Derrida’s philosophy of hospitality.” 『The Hospitality Review』(2006). 51~53.

64) 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환대는 주체중심의 서양철학이 지닌 폭력적 성향을 비판한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에 근거하는데 이는 주체적 자아의 관점에서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타자중심의 관점에서 타자와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데리다는 이 ‘무조건적 환대’가 윤리적 성찰의 준거로 유지될 뿐이지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김애령. 같은 글. 187~190.

65) 김현경, 같은 책, 191~213.

에 대한 평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심지어는 배척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이주 유형으로는 이주 노동자와 난민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 부담이 되는 난민의 유입은 꺼리고, 3D업종에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근로조건과 기간을 채우고 돌아가길 바라며, 사회에 위협이나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불법체류자<sup>66)</sup>들은 색출해서 추방하는 것이다.

둘째, 이주민을 단순한 환대의 대상, 즉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는 동화주의, 혹은 다문화주의 모형에 해당되며 이는 데리다가 비판한 ‘초대의 환대’ 혹은 ‘조건적인 환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환대의 대상을 초대받을 만한 대상인지, 위험하지는 않은지 조건을 엄격하게 따져서 선별적으로 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별하여 행해지는 환대는 환대의 대상이 되는 ‘선택받은’ 이주민들이 초대한 사람(선주민)의 문화와 규범에 따른다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하에 서만 가능하다. 이 경우, 환대라는 의미가 단지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나그네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남게 되고 주인은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이 된다. 즉 주인과 손님 사이에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환대는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적인 환대는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이주민, 환대의 대상)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주인(선주민, 환대의 주체자)의 관용의 수준에 머물고 만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주민 유형은 결혼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의 한 정책으로 크게 증가한 결혼 이주여성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66)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출입국관리법상 사용되는 용어인데 언론과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는 이 대신 ‘미등록 외국인’ 혹은 ‘초과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연구자도 이에 동의하는 바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고, 문맥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정책은 그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정책은 시혜의 성격이 짙고, 우리말과 문화를 배우고 적응하도록 하는 동화주의적 경향이 강하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강조되는 ‘다문화 정책’도 아직은 그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하게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이주민(타자)을 주체로 보고 그들의 방문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데리다가 강조한 ‘방문의 환대’ 혹은 ‘무조건적인 환대’에 해당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는 낯선 장면이다. 하지만 최근 다문화관련 시민단체, 지역사회 모임, 선교단체 등에서 새롭게 시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현 경제시스템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이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자치적으로 협동조합<sup>67)</sup>을 구성하여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경제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도 모든 학습자의 문화의 정체성을 존중하여 각자에게 문화적으로 가장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문화적 지식, 태도,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한 상호문화교육이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성경적으로 의미가 깊고 풍성한 ‘환대’는 구약과 신약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자 사명으로 강조되고 기독교 공동체의 전통 속에서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환대

67) 연구자는 이주민들과 선주민이 자발적으로 설립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모델을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조직의 최상의 단계로 본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치적 참여, 그리고 사회 기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독교계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 분야에 관한 신학적,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라는 단어는 기독교 공동체내에서 단순하게 ‘부드러운 친절, 부담 없는 교제, 온화한 모임, 편안한 분위기’등을 풍기는 수준으로 그 힘을 대부분 잃어버리며 그 본래의 의미와 대상이 축소되었다.<sup>68)</sup>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이 이주민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는 우리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주민들을 사회, 경제적으로 부담과 위협이 되는 배척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는 조건적 환대의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그들을 선교의 대상이나 교회성장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 V. 평등을 지향하는 공정한 환대의 실천 -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의 기독교 다문화사회복지 실천

환대를 통한 다문화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의 신학적 근거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9: 33-34)라는 말씀에 근거한다. 이때 하나님은 거류민을 환대하려고 하시며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셨다. 예수가 가르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나그네에게 이름이나 신분도 묻지 않고, 아무조건 없이 그를 보살폈다. 이는 데리다가 강조한 타인을 주체로 대하는 ‘무조건적 환대’와 상통한다. 그리고 갈

---

68) Nouwen, Henri. *Reaching Out: The Three Movements of the Spiritual Life*. (New York, Image Books, 1975). 65~77. 전통적인 환대의 가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가치와 상충하여 그 의미가 퇴색하여 단순하게 손님을 정성껏 맞이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환대라는 단어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발전하여 호텔 및 요식사업의 구호로 변했고 심지어 ‘환대학’이라는 전공도 등장했다

라디아서 4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류민, 외국인, 나그네로서의 자신의 삶을 발견했고, 인종, 성별,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가족이란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sup>69)</sup>

본 장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환대’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의 불평등에 대응하는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에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사회에서 성경적 환대의 출발은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는 것이다. 뉴먼(Newman)은 오늘날 왜곡된 형태의 환대의 모습으로 (1) 감상적으로 사유화된 환대(a privatized sentiment) (2) 시장식 물물교환 환대 (marketed exchange), (3) 조건적인 포용적 환대(mere inclusivity)를 소개하면서 진정한 기독교인의 환대는 “집 없는 환대(homeless hospitality)라고 했다.<sup>70)</sup> “집 없는 환대”는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인, 인종과 성별로 인해 차별과 억압을 받는 사람들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sup>71)</sup> 이주민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와 다르고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나와 같은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며,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나우엔(Nouwen)<sup>72)</sup>이 말한 것처럼, 환대는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롭고 친근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적개심이 환대로 바뀌면 낯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러 온 손

69) 박홍순, 같은 글, 178~180.

70) Newman, Elizabeth. *Untamed Hospitality: Welcoming God and Other Strangers*. (MI: Brazos Press, 2007), 11~19.

71) 정경호, 같은 글, 183.

72) Henry Nouwen, 같은 글, 66~67.

님으로 바뀔 수 있다(창 18:1-15; 왕상 17:9-24; 눅 24:13-35). 그렇게 되면 주인과 손님을 구분하는 노력은 인위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새롭게 깨닫게 된 일체감속에서 사라져버린다.

둘째, 나와 다름을 존중하고 환영하며, 상호이해와 교류를 통해 상호 유익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일방적 시혜가 아닌 상호 환영의 환대는 환대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선물이 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sup>73)</sup> 창세기(18:1-15)에 등장한 세 명의 나그네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귀중한 선물을 갖고 온 사람이다.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주민의 문화와 경험, 이중 언어의 능력 등은 나와 우리 사회를 더 풍성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선물인 것이다. 또한 누군가를 환영할 때는 그 사람이 속한 문화의 범주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과정과 맥락, 그리고 관계에 근거하여 상호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문화주의적 소통의 방식으로 낯선 사람과의 만남은 모범적인 사례는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을 부를 때(요4:1-42)를 들 수 있다.<sup>74)</sup>

셋째, 예수님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반자를 환대하는 실천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예수의 삶과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다문화적 신앙공동체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환대의 본래의 가치를 되살려서 일상생활에서 환대를 실천해야 하는데, 교회야말로 환대의 삶을 실현되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이다.<sup>75)</sup> 우선적으로 환대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앤더슨(Mary Anderson)은 음식만을 나누는 환대가 아닌 복음을 나누는 환대를 강조한다.<sup>76)</sup>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이미 성령이

73) 손운산, 같은 글. 263~266.

74) 유혜슈, 같은 글. 151~164.

75) Pohl, Christine D. "Hospitality, a practice and a way of life." 『Vision』(2002), 38.

76) 이외에도 수동적 환대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환대, 주인의 선호도에 의해 베푸는 환대가 아닌 손님의 욕구에 초점이 맞춰진 환대를 강조한다. Anderson,

역사하는 곳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이자 손님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예배의 환대를 주일 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으로, 낯선 사람으로, 그리고 원수에게도 확대할 수 있다.<sup>77)</sup>

셋째, 하나님의 정의에 함께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확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하게 친절을 베풀고, 먹을 것과 옷을 주는, 며칠 재워주고 극진히 대접하는 주인과 손님 관계의 환대나 시혜가 아닌 적극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의롭고 평등한 삶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초대해야 한다. 개인적인 환대의 실천, 교회라는 공간 안에 갇힌 환대는 사회적 불평등과 억압의 문제에 도덕적, 실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순한 환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해 공동체윤리를 기반으로 정의와 평화의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sup>78)</sup>. 그 결과 환대의 신앙공동체는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공동체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와 글로벌 자본주의의 탈지역화의 부작용에 대응하는 대안적 지역경제공동체 모델이 될 수 있다. 레티 러셀 (Letti M. Ressel)<sup>79)</sup>은 환대는 하나님의 환영을 실천하는 일로써 위기에 놓인 오늘날 우리사회를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개인 간의 차이를 넘어서 낯선 자들과 연대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환대는 성서의 근본이자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며, 세상의 분열과 불의를 치유하는 정의와 평화의 도구가 된다고 강조한다.

Mary W. "Hospitality Theology." *Christian Century*. Vol. 115, (1998. 07). 643.

77) Newman, Elizabeth, *Untamed Hospitality. Christian Reflection* (Waco: Baylor University, 1989). 11~19.

78) 손원영, "타자성의 이해와 교회 교육의 갱신." 『기독교 교육정보』 제7권(2003), 204~207.

79) Letti M. Ressel, *Just Hospitality: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공정한 환대. 여금현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2012. 156~163.

<표 1> 다문화주의의 모형, 인정의 정치, 배제와 참여, 환대, 평등개념 간의 수준비교

다문화주의 모형	인정과 재분배, 정의	배제와 참여	환대의 수준	평등
차별배제		사회·문화적 배제		불평등
동화주의	인정(人情)	소극적 참여	초대의 환대 조건적 환대	
다문화주의	인정(認定)			
상호문화주의	상호이해, 상호호혜	적극적 참여	방문의 환대 무조건적 환대	

## VI. 나가는 말

한국은 짧은 기간에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동시에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는 인구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당장 2017년을 시작으로 인구절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노동력이 감소되는 동시에 내수를 지탱하는 소비인구도 줄게 되어 심각한 경제 위협이 될 것이다. 현재 3.6%에 해당하는 이주민은 대한민국 사회유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사회학적 변화의 영향은 한국교회와 기독교계와도 무관치 않다. 실제 농어촌 지역의 인구사회적변화로 인한 교회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sup>80)</sup>

하지만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의 현 상황은 아직 동화주의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낮은 수준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계의 대응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혜나 관용 수준의 다문화 담론과 정책, 그리고 실천으로는 건강하고 평등한 다문화사회로의 이전이 불가능하다. 다문화가정을 위주로 한 시혜적 성격의 국가주도의 다문화정책은 곧 한계를 맞게 될 것이고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성장이 멈추고 사회적 신뢰가 추락한 한국 교회와 기독교사회복지계 역시 다문화 이슈에 능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와 기독교계는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인권문제와 사회복지, 그리고 다문화선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다문화 현상을 방관자의 입장이나 손님접대의 차원에서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을 선교의 대상이나 교회성장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닌 상호이해와 교류를 바탕으로 진정한 이웃으로 환대하여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방인에게 무조건적인 환대를 베푸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환대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다. 철학적 혹은 이론적 영역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무조건적 환대’가 가능한 것은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에게 공동체의 전통과 환대의 DNA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경말씀과 신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선주민을 대상으로 한 상호문화주의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상호문화주의적 환대의 의미를 실제 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서 이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목회사례 및

80) 성신형·김성호, “한국적 신사회위험에 대응하는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방안연구: 인구 사회학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제39집(2016), 193-199.

신앙공동체 모델, 기독교사회복지 모델, 사회적경제 성공 사례를 발굴해서 연구하고, 쉽게 적용이 가능한 모델로 개발하여 널리 전파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과 평등의 이슈는 다문화라는 지엽적인 주제나 특정 대상으로만 한정해서 대응해서는 이룰 수 없는 사안임을 주지하여 우리사회에서 소외받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다양한 소수집단에게도 동일한 환대의 신앙과 실천을 적용하여 건강한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서적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서울: 문학과지성사, 2016.

• 번역서적

Letti M, Ressel. Just Hospitality: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공정한 환대』 여금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Houten, Chr. Van, *The Alien in Isaelite Law*. , 『너희도 이방인이었으니: 구약법에 나타난 이방인』이영미 역.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8.

• 양서

Castles, S. & Miller, M. J. *The Age of Migration*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2003.

Martyn Barrett, *Interculturalism and Multiculturalism: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13.

Newman, Elizabeth .*Untamed Hospitality: Welcoming God and Other Strangers*, MI: Brazos Press, 2007.

Nouwen, Henri, *Reaching Out: The Three Movements of the Spiritual Life*. New York, Image Books, 1975.

Pohl, Christine D.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Taylor, Charles, *Politics of Recognition*, in Amy Gutmann(ed.), *Multicultur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94.

*The Merriam-Webster New Book of Word Histories*, (1991) Mass: Merriam-Webster Publishing, 1991.

• 학술논문

- 구분규, “‘다문화’는 어떻게 이주민 가족을 비하하는 말이 되었나? - ‘다문화 가족’ 만들기와 이주민의 범주화.” 『동북아문화연구』 제42집(2015), 5-34.
- 권수경, “환대와 글쓰기 - 레비나스, 데리다, 자베스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53집(2015) 75-106.
- 금혜성·임지혜, “독일·영국·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정 국제비교: 외국인의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와 정책적 배경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3권 2호(2010), 33-70.
- 김경호, “성서에 나타난 이방인들 - 통일시대 북한 유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신학.” 『시대와 민중신학』 제4권(1997), 131-151.
- 김명현, “성경 속의 이주와 다문화.” 『다문화와 인간』 제1권 제2호(2012), 63-103.
- 김미나, “다문화사회의 진행 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연구.” 『행정논총』 제47권 4호(2006), 199-120.
- 김애령,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39호(2008), 175-205.
- 김호연, 미국의 동화주의적 이민자정책과 다문화주의, 『인문과학연구』 제28호(2011), 247-268.
- 김홍수영, “시민성을 기준으로 조명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노숙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2005), 179-200.
- 나동광, “나그네 신학의 기초.”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20집 제1호(2001), 187-209.
- 남찬섭, “공공성과 인정의 정치, 그리고 돌봄의 윤리.” 『한국사회』 제13집 1호(2012) 845-863.
- 박경미, “세계화에 맞선 초대교회의 평등사상.” 『신학전망』 제167호(2009) 38-77.
- 박홍순, 한국 사회의 이주민, 대안적 정체성 그리고 성경 해석. 『선교와 신학』 제20권(2007), 155-184.
- 서중남,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역할과 과제.” 『교육문화연구』 제15권 2호(2009), 75-104.
- 설한, “배리(B. Barry)의 다문화주의 비판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OUGHTOPIA: 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제19권 2호(2014), 33-64.
- 성신형·김성호, “한국적 신사회위험에 대응하는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방안연구: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제39집

(2016). 179-212 .

손운산, “낮선 이를 환대하라.” 『돌봄의 목회』 제4권(2012). 260-270 .

손원영, “타자성의 이해와 교회 교육의 갱신.” 『기독교 교육정보』 제7권(2003). 193-220.

송재룡,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학, 그리고 그 너머: 찰스테일러를 중심으로” 『사회 이론』(2009). 79-106.

오승은, “찰스테일러의 인정의 정치” 『이민인종연구회』 제5권 6호(2012). 5-10.

오정은, “유럽의 상호문화정책연구: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6권 1호(2012). 38-62.

왕대일, “나그네(게르)- 구약신학적 이해,” 『신학사상』 제113집(2001). 101-121.

유혜숙, 상호문화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소통의 길: 예수그리스도의 족보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근거하여. 『신학전망』 제183호(2013). 134-183 .

장미경, “한국사회의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 제39집 6호(2005). 159-182 .

장은주, “사회권의 이념과 정치.” 『사회와 철학』 제12호(2006). 187-216 .

장한엽, “한국 이민자 자녀와 관련된 용어 사용상의 문제점.” 『이중언어학』 제46호(2011). 347-366.

정경호, “환대의 법상, 환대의 신학 삶” 『신학과 목회』 제34호(2011). 177-209 .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23권 1호(2004). 511-525.

정홍모, “다문화주의의 보편적 정치윤리논쟁.” 『문화와 정치』 제1권 제1호(2014). 31-61.

최무열, “한국 다문화가정 문제의 효과적 접근을 위한 신학적 준거틀 형성: 구약과 외경을 중심으로.” 『교회사회사업』 제10권(2009). 67-116.

한동구, “나그네에 대한 (구약) 성경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집(1988). 289-303.

한승준,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2008). 463-486.

Abdallah-Pretceille, Martine. “Interculturalism as a paradigm for thinking about diversity.” *Intercultural Education*. 17(5), (2006). 475~486.

- Anderson, David W. "Hospitable Classrooms: Biblical hospitality and inclusive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 Christian Belief*. 15(1), (2011). 13-27.
- Berry, John. W.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1997). 5-34.
- Bloemraad, Irene .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 current Review." *JIMI/RIMI*, Vol 1, No. 1. (winter, 2000), 9-37.
- Hale, Charles R. "Does Multiculturalism Manace? Governance, Cultural Rights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in Guatemala."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34(3), (2002). 485-524.
- O'Gorman, Kevin D. "Jacques Derrida's philosophy of hospitality." *The Hospitality Review* (2006). 50-57.
- Pohl, Christine D. "Hospitality, a practice and a way of life." *Vision*. (2002). 34-43.
- Saramento, Clara. "Interculturalism, multiculturalism, and intercultural studies: Questioning definitions and repositioning strategies." *Intercultural Pragmatics*. 11(4), (2014). 603-618.
- Shaw, Perry W. H. "A welcome Guest: Ministerial Training as a Act of Hospitality." *Christian Education Journal Series*, 8(1), (2011). 8-26.

• 인터넷 자료

- Anderson, Mary W. "Hospitality Theology." *Christian Century*. (1998). 643.  
<https://www.questia.com/magazine/1G1-21003283/hospitality-theology>
- The Guardian, Ave, F. Europe's future: make yourselves at home, (2007. 06. 05).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07/jun/05/europes-futuremakeyourselvesathome>
- Hospitality Evangelism. Christian Library. (2013). [www.christianstudylibrary.org](http://www.christianstudylibrary.org)
- Redian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 인종차별 개선권고" (2015. 07.02), <http://www.redian.org/archive/90277>
- Nursoo Ida, Dialogue Across Difference: Hospitality between Kant and Derrida. *Bordlands e-journal*. Vol.6(3), 2007, <http://www.borderlands.net.au/>

• 기타문헌

김경미 · 신유리 · 전정식,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관한 연구: 세대별 노동과 교육,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장애학국제세미나 2012: 한국과 일본의 장애와 병을 둘러싼 논의』 생존학연구센터보고. 2013.

김성근, “다문화사회에서의 갈등문제 실태분석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9.

황정미 · 문경희 · 양혜우 · 정승희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III).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참여현황과 증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논문투고일: 2016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16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19일

---

• 국 문 초 록 •

---

한국은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표방해온 다문화주의 정책은 주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수준도 단순히 차별을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나 민간의 영역도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아직도 온정주의적이고 동화주의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다문화정책과 실천방식으로 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향후 다문화사회의 이행이 필연적이라면, 평등하고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 안목의 정책적 대안을 근거로 한 실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가 보여준 '환대'의 정신에서 찾고자 한다.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가르친다. 평등하고 조화로운 다문화사회의 이행은 이주민들을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로 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맞이하고 그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상호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환대의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목표로 진행되었다. 첫째,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계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응을 위해 상호문화주의를 소개하려고 한다. 둘째, 성서에 나타난 다문화 관련 사상을 환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다양한 다문화 이론에 적용하고 비교한다. 셋째,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불평등에 대응하는 공정한 환대의 성서적 근거와 실천적 제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다문화, 상호문화주의, 기독교사회복지, 평등, 환대

---